

예술인 복지 증진 · 사업 발굴 '한뜻'

전북문화관광재단-하이트진로 특관전주지점, 업무협약... 메세나사업 플랫폼 구축 등 협력

(재)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기전)은 28일 재단 대회의실에서 (주)하이트진로 특관전주지점과 상호협력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기전 대표이사와 임동식 특관전주지점장이 협약서에 서명, 향후 전라북도 예술인의 복지 증진 및 메세나 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약속했다.

(주)하이트진로는 전국의 각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교육 및 장학사업, 소외계층지원 및 봉사활동, 공익캠페인 및 환경보전, 중국동포지원사업 등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분야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협약식에 따라 양 기관은 ▲내 예술인복지 증진 및 전북형 메세나사업 플랫폼 구축 ▲교류 협력을 통한 전라북도의 문화예술 경쟁력 확보 ▲전라북도 문화예술 정책에 부응할 수 있는 사업 발굴 ▲그 외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 발굴 등을 협력한다.

또한, (주)하이트진로 특관전주지점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놓여 있는 도내 예술인들을 위해 종합검진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며, 재단은 (주)하이트진로 특관전주지점 임직원을 대상으로 재단 브랜드 공연을 40% 할인된 금액에 관람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임동식 특관전주지점장은 "예술인들의 복지 및 안정적인 창작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인 지역사회공헌을 추진하겠다"며,



(재)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기전)은 28일 재단 대회의실에서 (주)하이트진로 특관전주지점과 상호협력 협약(MOU)을 체결했다.

"(주)하이트진로 특관전주지점은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및 도내 예술인과 함께 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기전 대표이사는 "협약식을 계기로 도내 예술인들과 기업 간 문화예술 협력체계를 구

축하고, 전북형 메세나 사업의 플랫폼을 조성해 문화예술향유에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협약에 대한 문의는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문예진흥팀(230-7418)으로 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제21회 남원향토문화대상' 선정

남원문화원, '문화장' · '공익·애향장' · '효열장' 3명 발표

남원문화원(원장 김주완)은 지난 27일, 지역 문화발전과 공익애향, 효열에 타의 귀감이 되고 아름다운 미풍양속을 계승 발전시키며 지역사회에 헌신 봉사해온 제21회 남원향토 문화대상자를 선정 발표했다.



문화장 윤정옥 공익·애향장 박점동 효열장 김형근

수상자는 문화장에 윤정옥, 공익·애향장에 박점동, 효열장에 김형근 씨로, 문화장 수상자 윤정옥(65) 씨는 성균관 여성유도회 남원지부장으로 재직하며 전통예절 및 문화재활용사업 등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으며 전통문화를 전승 발전시켜 나가는데 지난 20여 년간 남원향교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 특히 어린이, 청소년, 성인들을 대상으로 전통 예절교육을 통해 올바른 인성을 키우고 지역사회의 전통 문화가치가 정착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였었다. 공익장 수상자 박점동(80) 씨는 1970년 고향을 떠나 어려운 역경을 딛고 일어서 지난 1994년부터 성남시민회 창립과 함께 성남 남원향우회원으로 활동을 시작하여 남다른 고향사랑을 펼쳐왔다. 특히 2013년부터는 10여 년간 재 성남 남원시민회장으로 추대되어 향우회를 활성화 시켰고 남원의 농·특산물 구입과 홍보에도 앞장서 왔

으며 성남지역의 사회봉사활동을 통해 남원의 위상을 높여 왔으며, 남원정확속 건립, 2020년 수해 때는 본인 뿐만 아니라 향우회원들과 성금을 기탁하는 등 애郷심을 발휘해 왔다.

효열장 수상자 김형근(64) 씨는 지난 20여 년간 홀로 살면서도 98세의 노모를 지극 정성으로 봉양해 왔다. 특히 자신의 몸도 성치 않음에도 고령인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며 대소변을 손수 받아내고 매일 조식으로 밥을 챙겨드리면서도 힘든 내색 없이 모시왔을 뿐만 아니라 이웃 간에도 나보다 이웃을 먼저 배려하는 따뜻한 온정의 마음으로 대하여 주위로부터 칭송이 자자해, 물질보다 마음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본보기가 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도 최우수축제 '진안홍삼축제'

3년 연속 선정 7000만원 인센티브 확보

진안군 대표축제인 '진안홍삼축제'가 2022년도 전라북도 최우수축제로 선정되면서 3년 연속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지난 17일 전라북도에서 매년 14개 시·군 대표축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실시하는 대표축제 심사에서 진안군 대표축제인 '진안홍삼축제'가 최우수 축제로 선정돼 인센티브 7000만 원을 확보했다.

2016년 진안군 대표축제로 지정된 진안홍삼축제는 지역특산물인 홍삼을 테마로 한 체험형 축제로 시작됐고, 2020년도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관광축제'와 전라북도 '최우수 축제'로 선정됨으로써 명실상부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발전했다.

올해 진안홍삼축제는 지난 10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 간 온라인 축제로 개최됐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오프라인 프로그램은 취소하고, 온라인 프로그램인 참여형·시청형 프로그램, 공모전 및 이벤트 등 19개 프로그램으로 다양하게 구성하여 참여자들로부터 큰 호



진안군 대표축제인 '진안홍삼축제'가 2022년도 전라북도 최우수축제로 선정되면서 3년 연속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응을 얻었다. 박명석 진안홍삼축제추진위원장은 "처음으로 진행된 온라인 진안홍삼축제가 코로나19로 지친 군민들에게 새로운 즐거움과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했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내실 있고 알찬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주시, 청년문화기획자 안정적 창작활동 지원

전주시가 지역 청년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창작활동과 네트워킹 기회를 지원한다.

시는 28일 서노송동 뚝방의 미술관에서 '2022년 전주 청년문화기획자 지원사업'에 선발된 5명의 청년문화기획자들과 함께 오리엔테이션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오리엔테이션에는 청년문화기획자 5명과 지역문화기획자 8명이 참석해 청년문화기획자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과 작업실 공간 이용에 관한 사항 등 협약내용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다.

향후 청년문화기획자들에게는 1년간 전주에 너지센터 2층에 마련된 작업공간이 제공되며, 우수 문화기획 전문가들로부터 프로젝트 구상이나 활동에 필요한 개별 컨설팅이 지원된다. 또 지역 문화예술 현장과의 소통, 예술인과의 네트워킹의 시간도 주어진다.

이와 관련 전주에너지센터 2층에 마련된 작업 공간의 명칭은 '전주적 문화기획모드 온고(ON GO)'로 확정됐다. 청년문화기획자들은 지역문화기획자들과 전주의 문화기획이 유행을 이룰 어내고 트렌드를 만들어 나가는 지속성에 대한 의지를 담아 이 같이 정했다. /김윤상 기자

태권도진흥재단, 2022 세계태권도 그랑프리 챌린지 엠블럼 발표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오용환)은 세계태권도연맹(총재 조정원)과 함께 '무주 태권도원 2022 세계태권도 그랑프리 챌린지(이하 그랑프리 챌린지)'의 공식 엠블럼과 마스코트, 슬로건 등 대회 상징물을 28일 발표했다.

그랑프리 챌린지 엠블럼은 힘차게 상승하는 태권도의 발차기를 바탕으로 세계로 뻗어가는 태권도 정신을 상징했다. 파란색은 그랑프리 챌린지의 '도전 정신'을, 하단의 금색은 챌린지의 '성취'를 의미한다. 특히 그랑프리 챌린지 엠블럼은 '그랑프리 시리즈'의 연속성을 위해 세계태권도연맹의 그랑프리 엠블럼을 활용했다.

마스코트는 태권도원 캐릭터인 백운도사와 태양, 진진의 친근한 모습을 활용했다. 절도있고 강직한 마음으로 태권도 수련을 지도하는 '백운도사'를 심판으로, 호랑이 '태랑'과 진돗개 '진진'의 발차기 모습을 표현했다. 마스코트는 심판의 공정하고 현명한 판정과 겨루기 선수의 페어플레이 정신을 표현한 것이다.

또한, 슬로건은 '위대한 체·인·지의 시작 (Make a Challenge, Make a Change)'으로, 우리말과 영어의 동음이의어를 살린 표현이다. 체(體), 인(認), 지(至)와 영어의 Change를 뜻하는 것으로 도전과 도약, 도달의 의미를 지닌



다. 태권도 수련을 통해 체력과 지식, 내면의 성장을 통해 태권도 정신에 도달을 표현하는 등 그랑프리 챌린지에 출전하는 선수들의 끊임없는 도전 정신과 열정을 일깨워주고, 세계적 선수로의 합창 도약을 나타내었다.

태권도진흥재단 오용환 이사장은 "엠블럼과 마스코트, 슬로건 발표를 통해 대회 개최를 공식적으로 알렸다"며 "2017년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이후 5년 만에 태권도원에서 개최되는 세계 대회이니 만큼 방역과 안전을 포함해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펼치고 태권도 위상을 드높일 수 있는 대회가 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주 태권도원 2022 세계태권도 그랑프리 챌린지'는 내년 6월 10일부터 12일까지 태권도원 T1 경기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JJC 전북

YouTube, KakaoTV, NAVER TV, Daum, NAVER jjctv 전북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TV방송채널 kt 올레TV ch.224 Btv ch.285 tv ch.253

JJC 본사: www.jjctv.co.kr tel: 02-2057-001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23F
 JJC 전북총국: jjctvjeonbuk.com tel: 063-246-0885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5F